

정보화 시대의 영성-은밀한 기도의 골방 속으로

- 방선기 목사 / 2001. 9. 25 -

콜롬비아대학교 교육학 박사, 현 이랜드 사목, 직장 사역연구소(BM)소장)

요즈음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이나 인터넷을 통한 채팅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를 해결할 뿐 아니라 주식이나 기타 정보들이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매달리는 형편입니다. 이런 현상은 분명히 문화적인 발전의 결과이며 거의 피할 수 없는 오늘날 시대적인 현실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단체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인터넷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사회적인 격리 현상이 따른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일주일에 다섯 시간 이상 인터넷에 매달려있는 사람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사이버 공간에서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대체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동안 텔레비전이 가족들 사이의 대화를 단절시킨다고 우려했었는데 컴퓨터 중독은 텔레비전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은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서 대화만을 단절시키지만 인터넷 중독은 대화단절을 넘어서서 가족들에게 관심을 잃게 할 뿐 아니라 아예 함께 모이기를 귀찮아하고 접촉도 꺼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텔레비전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이제 인터넷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인간관계의 문제나 공동체의 와해에 대해서 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우려하는 바가 되었다면 크리스천으로서는 더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사회적인 격리현상 못지않게 중요한 영적인 격리현상이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제를 하지만, 또 혼자 있게 되면 적어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했었던 것이지요. 단순히 외로움(Lonliness)의 시간이 아닌 홀로 있는(Solitude) 시간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 자신이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고 (막1:35, 눅 5:15-16) 또 제자들에게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은밀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6:6)"

그런데 인터넷 때문에 아무리 은밀한 곳에 홀로 있어도 이젠 더 이상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정보가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은

말함을 누릴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한 영적인 축복의 상실은 오늘날 크리스천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을 질투한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인터넷을 질투(?)하시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영적인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속에 뛰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보화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길입니다. 툼툼이 은밀한 기도의 골방 속으로 들어가십시오.(마 6:6)

정보화 시대가 깊어 가면 갈수록 영혼이 메말라지기 쉽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딤후4:4-5)”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